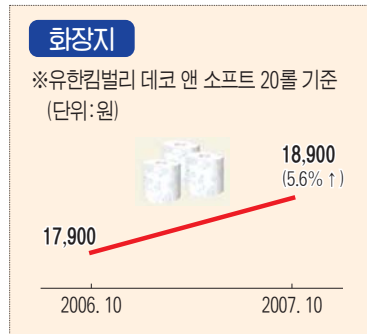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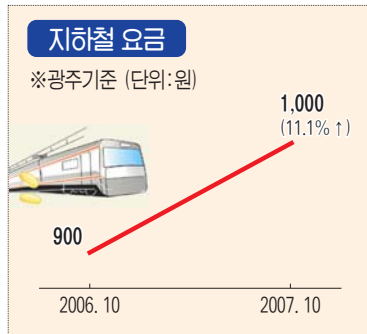


1 유가 고공행진 2 국제곡물가 급등 3 중국산 수입가 상승



세계 휩쓰는 3대악재... 장바구니 물가에 직격탄

국제 원유와 곡물가격 급등,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상승 등 소위 '트리플 악재'가 장바구니 물가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기초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화장지 가격이 5~10% 올랐는가 하면, 지하철 요금 등 공공 요금은 물론 채소값도 고공행진을 계속할 움직임을 보여 서민생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전남농협 공판장과 할인점 등에 따르면 배추(1단 3포기)는 1년전 3천361원에서 9천837원으로 193% 올랐고, 무(1개)는 1천300원에서 3천140원으로 141% 뛰었다.

또 대과(1단)는 775원→1천895원(144.5%), 꾀고추(1kg)는 3천410원→4천786원(40%), 애호박(1개)은 627원→674원(7.5%)으로 상승했다.

농협공판장 관계자는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6% 이상 오르면서 수입물

화장지·세제 등 기초 생필품가 5~10% 올라 지하철 등 공공료도 치솟아...서민들 깊은 시름

산물 가격도 5~10% 뛰었다"면서 "당분간 국내 농산물 가격은 보험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올해 4인 기준 김장 비용을 산정한 결과 작년 10만원보다 50%가 오른 평균 15만원선으로 예상해 주부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세도 소비자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지난달 말 밀가루값을 13% 인상하면서 라면·과자·빵 등 연관식품의 가

격인상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밀가루(2.5kg)가 지난 3월 2천280원에서 3천원으로 31.6% 올랐는가 하면, 라면(5개)도 2천350원에서 10.6% 오른 2천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유값 상승은 생필품 가격도 밀어올리고 있다. 이마트의 화장지 매출 1위 품목인 유한킴벌리의 '데코 앤 소프트'는 펄프값 인상에 따라 이달 초 1만7천900원에서 1만8천900원으로 5.5% 상승했다.

세계 역시 석유 파생물이자 세제의 원료인

계면활성제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LG생활건강, 피죤, 애경 등 대부분의 업체가 제품값을 7~8% 올렸다.

공공요금도 1년새 훌쩍 뛰었다. 광주 지하철 요금이 지난 9월 900원에서 1천원으로 11.1%, 도시가스요금도 1m당 610원에서 616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대해 유통전문가들은 최근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장바구니 물가상승이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삼성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9월중 수입 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7.4% 올랐다"면서 "식재료 및 원자재 가격상승과 과잉유동성 문제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라남도 주최로 24일 나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막된 '제 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향토웰빙관을 둘러보고 있다. '친환경 생명농업! 미래 희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땐 850만원 이상 도서 비치해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단지내 문고에 비치되는 도서의 가격은 8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의 거쳐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이같이 정해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의 300가구 이상을 건설할 경우 1천권이상을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어 입주자와 사업자간 분쟁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 기준은 25일 이후 최초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나주혁신도시에 '사이버 고향전시관' 건립

나주혁신도시에 실향민들을 위한 '사이버 고향전시관'이 건립된다.

24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시 금천면 배매산 주변에 혁신도시 건설로 고향을 떠나게 된

실향민들을 위해 영상박물관 형태의 사이버 고향전시관이 조성된다.

전시물은 현재 마을의 모습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다류멘터리물 등으로, 오는 12월부터 16개월간 구축작업이 진행된다. /최경호기자 choice@

“사업용계좌와 영업권 침해 우려”

광주·전남 소상공인들 보완·폐지 요구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계좌 제도가 사생활과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완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강영태)에 따르면 지역내 102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조사'를 펼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세원노출에 따른 납세의 세부담 증가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

현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68.7%)를 요구했다.

또 '사업용계좌제도가 정부의 도입 취지대로 세원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인 응답(43.1%)이 긍정(14.7%)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복수응답)로는 ▲부가가치세·소득세율 인하 및 매출세액 공제를 상향조정(79.0%) ▲별규위반시 가산세 부과보다 홍보·계도강화(60.0%) ▲업종과 수입금액을 고려한 대상범위 축소조정(53.0%) 등을 꼽았다.

▲사업용계좌제도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 개인거래와는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한 것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1일 도입됐다.

한편 이들 소상공인 가운데 62.0%가 전년 동기보다 현재의 경영상태가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음식점체(67.5%)가 제조·도소매업체(58.3%)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SASA' 신데렐라 시리즈 굿디자인 선정

'자녀방 전문가' SASA의 신데렐라 시리즈가 올 하반기 굿디자인에 선정됐다.

굿디자인은 가구, 건축, 인테리어 등 각 분야에서 기능, 품질 등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 굿디자인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데렐라 전 제품은 디자인의 우수성은 물론, 빛깔에 천연 옥가루를 배합함으로써 향균 및 탈취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SASA측의 설명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SASA 관계자는 "신데렐라 시리즈의 굿디자인 선정은 자녀방 가구 제품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SASA가구의 디자인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100% 유기농인재신농산물

장수춘쌈밥

자연 그대로... 우리물에서 올은 유기농산물입니다

1522-5933

로맨갤러리

특가 SALE

30% ~ 50% 할인